3학년 제28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2교시)

이름 :

학교명 :

감독 확인

응시번호 : --

◆ [가]와 [나]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찌 된 일인지 휴식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떠나기가 싫어졌어요. 상어 지느러미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로 떠나야…… 해.”

머릿속으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 주질 않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룻밤, 아니 며칠 머무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결국에는 아예 폭 쉬다가 가기로 했어요. 그때 눈앞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뚱뚱한 물고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나, 나는 이 친구들과는 달라. 나는 정말 조금만 쉬다가 떠날 거라고.”

그렇게 달콤함에 취해 스프르 잠이 들려는 찰나, 바로 옆에서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 《상어 지느러미 여행사》 중에서 -

[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어차피 체조도 안 하고 머리를 감지 않아도 되니까요. 뭐, 정 늦으면 세수도 건너뛰지요. 눈곱만 살살 떼고요.

늦게 일어나서 그런지 밥이 더 먹기 싫었어요. 나는 밥상 앞에서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렸어요.

(중략)

일기를 마저 쓰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오늘도 양치질 통과! 세수는 고양이 세수! 양말은 하루만 더! 옷은 어제 입던 거!

힘껏 달렸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늦게 교실에 들어갔어요.

“미도야, 요즘 너 이상해. 왜 매일 늦게 와? 다른 때는 항상 나보다 일찍 왔었잖아.”

은지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어요.

“미도야, 네 티셔츠에 밥풀 묻었다.”

민성이가 내 팔뚝 쪽에서 바짝 마른 밥풀 하나와 넓적한 고춧가루 하나를 떼어 보여주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중에서 -

1. [가]의 하루와 [나]의 미도가 하는 행동에서 공통점을 찾아 써 보세요.

2. 1번에 쓴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좋은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담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의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